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과 시민 인문정신 진흥의 방향성 고찰

이희원* · 서민정**

〈차 례〉

1. 포스트 휴먼 시대 시민사회의 인문정신
2. 1차 및 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주안점 비교·분석
3.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방향성 재고
4. 성찰적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기대하며

【국문초록】

과학·의학·통신·미디어 등 사회 각 부문의 다양한 기술 발달로 포스트휴먼 상상력이 일상이 되고 있는 최근 사회 조류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 구조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미래를 가늠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것은

* 제1저자,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교수

당연한 수순이다. 평생교육의 일신을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문학’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은 효율과 실리를 초월해 개인 행복과 공동체 연대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는 만큼, 유의미하게 살펴볼 사회적 변화다. 본고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기본계획 중에서 시민사회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문체부 기획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특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하는 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립된 시민들의 ‘외로움’ 극복, 증가한 1인 가구와 고령층에 대한 공적 보호망 확립, 새로이 부각한 MZ세대에 대한 이해 등에 관심을 기울인 정책들, 그리고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이어가는 콘텐츠 개발 및 계발에 관한 정책 기획으로서 그 사회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계획이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이나 앞선 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 계획안에서는 무엇보다 학문 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재들과의 접촉이 필요하고, 1차 기본계획의 큰 맥락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자리매김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시의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인문정신을 정립하는 근본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항목에서 ‘외로움’을 인문학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 다소 비현실적인 면모가 보이기도 한다. 외로움이라는 내밀한 문제를 포럼이나 거점센터 등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상정한다는 점이나, 심리학 전문가의 문제로 전환하는 등의 접근 방식이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맥락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지 재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인문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기획이 강조하는 콘텐츠가 대부분 전통문화에 치중해 있는 점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오늘날 한류를 이끄는 원천은 전세계인이 공감하는 당대적 시대의식의 한국적 발현이기에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더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 포스트휴먼 시대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상황의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문적 성찰적 시선을 확보하는 균형잡힌 인식을 시민 사회에 전파하는 적절한 정책을 수행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포스트휴먼 상상력, 인문학, 시민 인문 프로그램, 연대 의식, 코로나19, 한류

1. 포스트 휴먼 시대 시민사회의 인문정신

포스트 휴머니즘이란 인류문명의 인간 중심성을 근본에서부터 재규정하고자 하는 사상적 조류다.¹⁾ 특히 오늘날은 과학·의학·통신·미디어 등 기술 발달의 결과로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조건이 확산하면서 포스트 휴먼에 대한 관심도 유례 없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기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의 삶을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키고 있고, 가상현실과

1) 김재희,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제106집, 2014, pp. 215-242; 박휴용, 『포스트휴먼 인문학의 이론적 배경 및 성격과 연구의 방향』, 언어과학회, 『언어과학연구』 제104집, 2023, pp. 347-378 참조.

증강현실 기술은 리얼리티의 범주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달은 공간적으로 한정되고 시간적으로 필멸(必滅)하는 인간에게 생사의 마지노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권력이나 물력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변화하는 삶의 조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낮설다. 때문에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자기 자신을 유지·보호하면서 타인과 적절하게 소통하며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종류와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미래를 가늠하기 힘든 이러한 현실 앞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앨빈 토플러가 1990년대에 이미 말했던 ‘21세기식 문맹’²⁾에서 상정해볼 수 있듯 현대인들은 이 급변하는 시대의 지식을 계속해서 배우고 기존의 앎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지속할 때에야 비로소 문맹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진흥의 정책적 기조는 시스템 정착과 관련된 부분이 강한 반면,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양산하고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약한 면이 있다. 또한 정규교육의 범주로부터 벗어나 있는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보완적 측면에 치중하는 반면³⁾, 교육 내용에 독자성이나 시의

2) 앨빈 토플러는 “21세기 비문해(illiterate)는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learn)을 할 줄 모르고, 수정 학습(unlearn)을 하지 않고, 다시 학습(relearn)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앨빈 토플러 지음, 이규행 옮김, 『미래쇼크』, 한국경제신문 한경BP, 1989, 403쪽)

3) 최돈민, 「한국 평생교육정책 평가」,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 제18집, 2012, pp. 119-142; 조순옥, 「유네스코 평생교육 논의에서 나타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어제와 오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 평생교육』 제2권 1호, 2014, pp. 55-80; 이경호·조대연·장은하,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비교 분석 연구」,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3, pp. 77-106 등 참조.

성을 가미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민 양성을 위한 평생에 걸친 교육의 근본적 필요성을 염두에 둘 때, 이제 평생교육은 일반 시민들의 삶을 디자인하는 지향점을 제공하는 청사진으로서의 의미를 확립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한다.⁴⁾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문학’이다. 인문학은 문학·역사학·철학 등 인간이 축적해 온 문화적 지식과 지혜 전반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의식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인간 삶의 패러다임이 거대한 전환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1세기식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 앞에서 그 정체성을 제대로 살피고 적절하고 주도적인 대응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대한 심화한 인문학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시민으로서 우리들은 평생교육의 질적 전환과 인문정신문화의 진화를 가져올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모색해야 할 바이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인문학법」) 제정은 이런 점에서 유의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회적 변화다. 이 법률은 2016년에 교육부와 문체부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법률로, 국가 차원에서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립된 법률이다. 이것은 갈수록 수치상 효율성이나 성과 산출만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가 확산하는 현상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사회적

4) 정복임, 「대학과 지역사회 평생교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국가 평생학습 진흥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21』 제12권 제4호, 2021, pp. 1945-1959; 윤민주·전하람·이경양, 「학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평생학습참여의 조절효과」,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문화연구』 제29권 제2호, 2023, pp. 587-608; 박지희·김현·이영란, 「대학 성인학습자의 개인배경, 학습특성 및 참여동기, 학습경험이 평생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인계속교육학회, 『성인계속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23, pp. 55-75 등 참조.

목소리에서 출발해 만들어졌다.⁵⁾ 인간과 세상을 근본에서부터 성찰적으로 고찰하고 공동체 연대의식과 생명 존중을 취지로 하는 인문학 혹은 인문정신의 양양이 성과 위주의 사회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에 일부 개정되고 2019년부터 시행된 「인문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개념을 보면,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로 정의되어 있다. “인문학”의 경우에는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 문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등의 학문과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그리고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범주를 전제로 해서 이 법률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제1조에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5년마다 “교육부 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제9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문학 기본계획이 대학이나 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시대와 호흡하는 연구 아젠다를 구상하는 쪽이라면, 인문정신문화 기본계획은 학문 틀 너머에서 시민사회를 향해 조성되는 인문 활동이나 여러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연관된다.

인문·인문학·인문정신문화 등이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류 공통의 근원적 문제에서부터 당대의 주요 사회 이슈에 이르기

5) 손정훈·김민규, 「인문학 현상과 인문학 진흥정책(2007-2014)」,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3집, 2016, pp. 41-59.

까지 인문적 성찰이 필요한 논제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성찰하는 시선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모든 존재들을 그 근저에서부터 살피고 그것들이 가져올 다양한 사회적 파장을 폭넓게 해석·비판하는 의식 작용이다. 인문정신을 사회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새로운 사회 변화와 조응하는 시대정신을 확보하기는 힘들다. 시대와 조응하는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는 시민들이 누려 마땅한 평생교육 콘텐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할 기폭제가 될 것이다. 시민사회와 호흡하는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해서 설계된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 이러한 지점에서 그 사회적 역할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긍정적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1차 및 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주안점 비교·분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해서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기획되고 있다. 문체부에서 마련한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를 단위로 하는 1차 기본계획이 있었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수행할 2차 기본계획이 제출되어 있다.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1)	
계획 수립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성장 정도에 비해 개인의 행복 수준은 저하되었고, 공동체 해체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 인간 존엄과 사회 안정을 위해 인간에 대한 성찰과 삶의 지혜 함양을 본질로 하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필요. - 인문정신문화가 개인 및 공동체의 위기 해결과 경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진흥 정책 추진 필요.
정책 추진의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인문 프로그램이 도구적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고 수혜자 확대에 치중했던 점, 그리고 매개자 교육이나 활동 지원에 소홀했던 면에 문제의식.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자 함.
계획 추진의 전반적 면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적 인문 소비 강화: 독서 생활화를 목표로 인적·물적 지원과 매개자·멘토 양성. - 인문 친화적 환경 조성: 도서관·박물관 활성화, 공간 나눔, 사서·학예사 역량 강화. - 장기적으로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 인문 콘텐츠에 대한 조사 연구 강화 및 제도 개선, 인문 콘텐츠를 매개로 국제 교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격차 줄이기 노력.
주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전문가 육성, 노인시설에 찾아가기, 자료 배달 서비스, 큰활자책 지원 등. - 독서 치유 개발 확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서 전문성 심화 및 지도자 양성. -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프로그램 확대. - 지역 배려, 취약계층(장애인, 농어촌, 격오지 부대 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지원. - 전통문화, 지역 콘텐츠, 공연 전시, 창작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콘텐츠 발굴·확산. - 관광 프로그램 개발. - 국제 네트워크 연계 방안 확대하고 해외 한국자료실 내실화.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은 향상되었으나 시민들의 행복 수준은 향상되지 못하는 현실이 놓여 있다.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실용성·목적성 지향의 자본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많은 존재들과 가치들에 대한 억압 있었고, 사람 사이에 만연하는 불신과 공동체 의식 약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이 기본계획이 찾고 있는 방법이 인문 가치의 회복이다.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성찰과 삶의 지혜 함양을 본질로 하는 인문정신문화 진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각 부처 간의 합의와 협력으로 인문정신의 제도적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즉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문정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제도, 즉 큰 틀에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춘 인문 프로그램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기한다. 우리 사회 체질 개선을 위해 인문 프로그램을 일신하고 지속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인문정신을 선순환시킬 제도 구성이 이 ‘기본계획’의 수립 이유라 하겠다.

그런 만큼 1차 기본계획은 기존 인문 프로그램의 내용상 피상성과 단편적 면모를 일신해 인문에 대한 본질적 성찰을 담는 시민 향유 프로그램 구성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이를 통해 전 세대·각 계층의 사람들을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인문 친화적 공간확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연계 가능성 모색, 프로그램을 시민과 연결해줄 매개자 양성 등에 관심을 갖는다.

효율과 실리를 따지는 논리가 아닌 관점에서 구성되는 삶의 가치를 지지하는 인문학은 바로 이와 같은 특징에 의해 현실을 육취

는 목적성으로부터 현실을 놓여나게 하여 새로운 관점과 자유로운 창의성으로 현실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가 존중될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수준은 향상되고 타인과의 연대감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의미를 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살펴보자.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우울감 심화 및 사회적 활력 저하에 대한 인문적 대응 지원. - MZ세대, 1인가구, 고령인구 등 새로운 인구층에 대한 인문적 대응 필요. - 한류 콘텐츠 활성화를 토대로 산업 진흥 및 한류 외연 확대 노력 필요.
1차 정책 추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다양화 및 참여자 확대. - 청년 인문 실험, 독서 장려 프로그램 활성화, 인문 기행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사서·학예사 역량 강화. -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
1차 정책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 강좌 및 독서활동 중심 운영으로 공동체 화합·연대를 위한 인문 프로그램 부족. - 공동체 내 분열·갈등, 1인 가구 증가, 초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인문 정책 부족. - 인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양한 공간 부족 및 지역 격차 해소 미비. - 인문 정책 확산을 위한 사업 간 연계 및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부족.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로와 공감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 확대: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극복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인문 심리 상담 전문가 양성. 포용과 통합으로 공동체 갈등 해결 사업 추진. 세대 간 공감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구성. - ‘코로나19’ 기록·보존 및 활용: 코로나19 등으로 변화한 일상 기록·아카이빙 프로그램 운영. 시민 참여와 정서 치유에 초점을 맞춘 축제형 행사 개최.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 활동 확대: 청년이나 인문 연구자 등 인문 활동 지원 확대. 활동적 고령자층이나 인문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후속 활동 지원. 인문 프로그램 운영에 시민 참여 기회 확대. 인문 축제 개최. 도서관·박물관·생활문화센터 등 지속적 확충과 인문 창작 활동 지원. - 문화적 지역적 인문격차 해소 및 자생적 인문 활동 지원 확대. 지역 인문 자원 기반 콘텐츠 개발 및 관광과의 연계. - 인문 자원의 산업적 활용 및 국제적 확산: 전통 인문 자원(전통놀이, 한복, 한글, 전통문양 등) 활용 산업화 지원. 인문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관광 산업 진흥. 한국의 인문 가치가 반영된 한류 확산 노력 - 인문전담기관 설립 및 지역 인문 진흥체계 강화. 정부·지자체 추진 정책에 인문 가치 반영. 전문 인력 활용 확대를 통한 인문 가치 확산. - 디지털 인문정신문화 플랫폼 구축.
----------	--

2022년에 제출된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중요시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의 사회 내 고립감과 우울감이 커지고 사회적 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인문 감성을 통한 위로와 공감, 활력을 제공하고 공동체 연대·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인문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 배경의 첫 번째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방향성은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MZ세대 등장 등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근거로 한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한류’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기존의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이를 인문 자원으로 심화 활용하는 부분에 관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제시한다.

이를 기준으로 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살핀다. 성과로 제시된 부분은 확실히 1차 기본계획에서 목적했던 요소들, 즉 인문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문화기반시설 확충, 취약계층 인문 프로그램 운영 등이 많은 부분 실행된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더불어 한계로는 첫째, 인문 강좌나 독서활동에 치중해 공동체 구성원의 화합이나 연대를 끌어내는 프로그램이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 여기에는 1인 가구나 MZ세대, 초고령화층의 필요를 반영하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에 대한 문제제기가 포함된다. 둘째는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기보다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치중한 강좌 개설을 한계로 지적하고, 더불어 지역 간 인문 프로그램 향유에 격차가 그리 좁혀지지 않았음도 문제시한다. 셋째는 인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분산되어 전문성 축적에의 한계를 확인하고, 지자체와 민간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을 통한 인문사업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관련해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따르지 않는 부분도 문제시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추진 과제들 면면을 볼 때 눈에 띄는 점은 먼저 코로나19 이후 확산한 시민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부분에 힘을 많이 실어 둔 모습이다. 심리학회와 협업하는 외로움 포럼 창립과 지역 특성에 맞춘 외로움 관리 프로그램 개발, 인문 심리 상담 전

문가 양성, 외로움 관리 지역 거점 센터 지정, 시민들의 정서 치유를 위한 축제 조성 등이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때의 상황을 기록할 담당층을 다양하게 발굴·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어서 ‘치유’와 ‘일상 회복’, ‘공동체 화합’을 키워드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인문 프로그램, 지역 균형을 맞춘 프로그램, 인문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조성, 인문학을 확산시킬 다양한 행사 준비 등을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이 내용들은 주로 업무 수행 단계 구성과 군중 행사 및 인문 강좌를 몇 번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수량적 목표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한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산업화’와 연계될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으로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과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살펴보았다. 전자가 처음 인문정신문화를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에 아이디어를 집중했다면 후자는 코로나19 특수의 정책들이 많이 등장했고, 성과 산출을 위한 내용으로 추진 과제를 설계하고 있었다는 점이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그런데 1차 계획에서 2차 계획으로 나아갈 때 그 변화의 핵심은 1차 계획을 유의미하게 평가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부분이 수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2차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가 과연 현시대를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문정신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면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3.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방향성 재고

1) 기본계획 간의 연계성 문제

<1차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인문정신에 대한 성찰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만들어졌다. 그런 만큼 인문 친화적 공간을 확보하고 적절한 인문 프로그램 조성을 통해 인문정신을 사회 전반에 일상화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지역 균형·세대 간 유대·계층 간 화합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1차 기본계획은 기존에 없던 사회 시스템 구축을 지향했던 만큼 시스템 구조의 확립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인문정신문화를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토대 거점으로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서와 학예사의 전문가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인문학과 관련된 기존 콘텐츠 및 콘텐츠 담당 영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차 계획의 시행 이후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외닿는 변화상은 활성화된 ‘작은 도서관’ 사업들과 시·군·구청 및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책임기독려 시민 프로그램이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인문 감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당연히 필요한 측면이며, 사회적 역량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인문정신문화의 양양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시스템 구축의 문제와 더불어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콘텐츠 부분, 즉 인문적 관점을 프로그램화하는 측면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부 주관의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과 문화부 주관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적절한 융합, 그리고 <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과 <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연계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전자 즉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결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인문학 진흥은 인문학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연구 토대를 안정화해 이들이 사회 속에 잘 스며들어 우리 사회의 문제적 지점을 인문적 감성으로 고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근본 취지다. 인문정신문화가 시민 삶 속에 인문 소양을 주입하고 삶을 보다 깊고 넓은 시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인정할 때,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과 지혜의 탐색을 업으로 하는 연구자들을 문체부가 담당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구축의 영역에 유입할 수 있는 길을 시스템화하는 것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1차 기본계획이 시민과 인문학을 연결해 줄 ‘매개자’ 육성 부분에 있어서 사서나 학예사 양성에 치중되었던 맥락은 인문학 진흥 파트가 아닌 인문정신문화 파트에서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스템 구축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인적 인프라 구성에서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파트의 연계는 양측에서 각자 수행할 인문학의 수준 향상과 대중화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양질의 인문학 지식이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에 의해 안정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향점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할 때 대학의 인문학 연구 인력과 시민 인문학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시도가 대학의 인문학 연구자가 시민 대상 인문 프로그램의 매개자로 자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확립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차 시행계획에는 ‘매개자’ 확보의 측면에서 사실상 제안하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 인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자 시민들이 매개자로 위치 전환하는 부분을 독려

하는 점이 제안되어 있긴 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양질의 인문학을 시민사회와 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매개자로 변화하고 삶에 새로운 방향성을 잡는 것은 그것대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다양한 인문학 원천을 가진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만나는 적극적 방법 모색을 통해 인문학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이 반드시 시스템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은 안착되지 않았다. 또한 서두에서 언급했듯 현대 사회의 변화상을 인문적 시각으로 의미화하는 일은 인문학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시민사회의 스케일에서 인문적 감수성으로 시대에 적응하고 자기 정체성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학 내 인문학 전문가들과 시민들과의 만남은 적극적으로 타진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후자 즉 1차 계획과 2차 계획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인문학과 관련해 모처럼 마련된 유의미한 정책을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 내에 안정화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2차 기본계획의 서두는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는 1차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의 연계와 관련한 의식이 정책 입안의 주요 사안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1차 기본계획의 성과는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이 시민사회에 제공되었고, 참여자가 많이 늘었으며,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확충과 사서 및 학예사 역량 강화, 노약자나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 콘텐츠가 개발된 점 등이다. 그런데 한계로 잡고 있는 부분 역시 이 항목들과 큰 차이가 없다. 사회에 기여하는 인문 정책이 부족하고, 다양한 문화기반시설 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지역 인문 향유 격차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효과 확산을 저해하는 정책적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달리 말하면 1차 기본계획이 아직 충분히 사회 내에 녹아들지 않았고 더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 인문학 인프라를 사회에 촘촘하게 깔아야 하는 점을 반영하는 말이라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2차 기본계획 추진 과제 내용의 많은 부분은 1차 기본계획을 중단하고 다른 식으로 새 방법을 찾는 양상, 그리고 그것을 양적으로 확대하려는 점에 힘을 쏟는 모습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외로움 포럼’ 창립 및 국제 포럼 개최, 그리고 심리학과 의 연계 등의 계획은 공무 집행의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인문학 외부의 전문가를 섭외해 인문학 자체의 콘텐츠 개발과 멀어지는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접근보다는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강연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문학의 근본정신을 사회 내 뿌리내리기 위한 심화한 고찰보다는 인문 콘텐츠의 산업화·자본화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으로 읽힌다.

2차 기본계획의 내용들이 인문학을 대중화해 사람들 가까이에 서 느끼는 인문정신문화를 양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공동체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삶의 지향점을 만들어가야 할 인문정신과는 멀어지고, 위계적 배타성을 만들어낼 여지가 있어 보이는 기구를 만들거나 경제적 이윤만을 기준으로 해 인문학 콘텐츠의 가치를 수단화할 가능성과 연계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급변하고 악화하는 한국 사회의 분열상을 극복해보고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해 법률까지 제정해 추구한 기본 취지와 괴리된다. 즉 2차 기본계획이 1차 기본계획에서 이어가야 할 근본정신 즉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의지를 확인하고

사회 체질 개선을 실천하는 부분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코로나19 팬데믹 경험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대응 전략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로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앞서 제시했듯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처온 직후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반영한 항목들이다. ‘외로움 포럼’ 창립을 포함한 외로움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인문 심리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외로움 관리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은 코로나19 이후 고립감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를 치유하는 부분과 관련된 계획으로 보인다. 그리고 많은 인문 예술 분야의 활동가들에게 팬데믹 기간 동안의 일상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을 들이고 있다.

확실히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환경오염 등의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여지가 많아진 상황임을 여러 과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사람들이 어떤 일상을 보냈고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는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도화하고, 같은 취지에서 여러 정보를 기록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온 지금이야말로 팬데믹으로 인해 만들어질 수 있는 인권 사각지대에서 기본적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었거나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식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

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인문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사람들을 적절한 안전장치 속에서 다시 모이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자발적 고립이 생명을 지켜주던 팬데믹 시기를 어떻게 살아내었는지에 대한 경험 나눔의 인문 프로그램 구성에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해서 그 제도들이 사람들에게 직접 가 닿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외로움’ 관리 부처 조성 아이디어가 적절한지, 당장에 사람이 그림고 사람이 필요한 시민들을 모이게 하는 자리를 만드는 데 들어갈 자원을 새로운 관리 체계 구성에 몰리게 하지는 않을지 의문이다. 전염병 창궐과 관련해 고립된 사람들이 느낀 ‘외로움’을 ‘관리’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센터’를 조성한다는 발상은 팬데믹 발발과 이에 의한 사람들의 고립을 이전에 사람들이 겪었던 고립과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더불어 외로움을 심리 치료적 측면과 연계할 때 외로움의 정체가 필연적으로 치료의 대상인 병적 상태로 상정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오히려 요즘 우리 사회의 움직임들을 보면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케 해준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이후로 느꼈던 외로움을 떨치고 달라진 현실에 적응하며 이를 활용하는 부분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바로 이 달라진 사람들의 감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부합하는 인문학적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외로움 관리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동안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소통 연대 화합의 장을 적절한 속도와 자연스러운 규모로 확대해가는 사회 내에 정착시키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한다.

3) 한국 인문정신의 세계화 원천 모색

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항목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와 관련된 사항이다. 오늘날은 인터넷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각국의 독특한 문화나 콘텐츠, 인적 자원 등이 일국의 스케일을 초과하는 것이 기본 설정값이 되다시피 하는 추세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콘텐츠들이 가진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세계적으로 인터넷 미디어의 활용 범위가 커지면서 더욱 강화되었다.⁶⁾ 특히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등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이나 <오징어 게임>, <미나리> <파칭코> 류의 한국 정서를 담은 드라마·영화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적 유행을 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각 아티스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부분이 크다. 하지만 이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문화를 세계화하고 한국의 영향력을 키워 온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세계로 퍼지고 있는 한국 문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맥락에서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한국 인문정신의 국제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타이틀로 재외문화원과 국내 한국 문화 기관들과의 연계,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인문 콘텐츠 자료 개발, 해외 박물관 등지의 한국 실 운영 조사 및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의 인문 콘텐츠

6) 백재은, 「한류 대중문화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제38권 제3호, 2021, pp. 215-238; 송시형,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사회문화적 의미」, 한국인문사회질학회, 『사회질적연구』 제6권 제4호, 2022, pp. 133-150; 임수진·동그란, 「케이팝의 글로벌 수용 현상과 발전 방향 모색」, 한국국회학회, 『한국과 세계』 제4권 제4호, 2022, pp. 153-177.

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삶의 영역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확인되는 기획이었다. 이미 세계화한 한국 관련 지식과 정보들을 정확한 고증을 거친 모습으로 정제하고, 내용상 우리나라의 입장이 의미 있게 반영되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노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 문화를 체계적으로 세계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류가 문화적 흐름으로 자리잡은 이 시대에 제대로 된 한국의 인문정신을 세계인들에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계획은 외교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항목이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인문 자원의 산업적 활용 및 국제적 확산’이라는 타이틀로 ‘신한류 확산’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강조하는 주요 콘텐츠는 한글이나 한복, 한식(韓食), 전통놀이, 전통문양, 옛이야기, 전통문화체험시설 등 전통문화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한류’라는 이름으로 트렌드화 된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는 더이상 과거 몇몇의 콘텐츠로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요소들로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의 고전적인 것들이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요소다. 실상 한국의 문화가 유행하게 되는 원동력의 많은 부분은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당대적 창작물들이다. 예를 들어 BTS의 노래나 〈오징어 게임〉에 전세계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한국의 고대 및 중세 사회의 전통이라서가 아니다. 신자본주의 사회, 혹은 뉴미디어 시대의 첨단에서 개개인의 삶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 현실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어떻게 역사를 되새기고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할지 하는 동시대인들의 고민이 한류 콘텐츠 속에 인문적 감성으로 생생하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기본계획

7) 이와 관련해서 송길영은 소위 ‘K-열풍’이라는 말로 ‘한류’에 대해 언급하

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문 콘텐츠가 전통 소재에 기울어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한국의 인문정신문화를 세계에 확산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좀 더 심화한 고찰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이 문제와 더불어 인문 자원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의 필요가 있다. 인문정신의 진흥은 기본적으로 정신문화와 관계된다. 그런 만큼 투자와 성과가 일목요연하게 산출되는 측면이 강하지 않다. 그럼에도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성과가 도출될 수는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때문에 인문정신을 진흥하기 위한 노력은 성과를 노리는 방향보다는 노력의 취지와 의미, 가치를 분명히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나 인문정신문화 진흥이라는 국가 단위의 정책을 수행하는 계획에서는 이윤을 확인하기에 앞서 이런 정신적 작용의 부문이 가지는 특징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차 기본계획은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 하는 지점만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많아 산업적 이익이나 수치상의 성과 위주로 주관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류와 관련해서도 1차 기본계획에 비해 ‘산업화’의 부분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인문정신을 훼손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자본 논리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이윤 창출의 도구로 수단화하는 자본 논리·성과주의가 결국 우리 사회, 나아가 전세계의 인문정신을 약화하는 원인 중 하나다. 그렇게 약화된 인문정신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인간적 가치들을 무력화했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이다.

는데, 그는 “K를 국가에 가두지 않고” “지금의 사회 변화에 공명함으로써 새로운 K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한류가 나아가 할 당대적 의미는 이러한 측면을 확보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송길영, 『시대에보: 핵개인의 시대』, 교보문고, 2023, p. 40)

따라서 자본 논리로 환산하는 산업화를 지향하는 시행계획의 면모는 이 법률의 근본 취지 자체를 흐리는 일이 아닌가 한다. 산업 발달과 자본 증식을 구태여 이 시행계획에서 주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정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 확산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것의 정체는 계산을 넘어서 ‘효과’이지, 수치나 지수라는 이름으로 도출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니다. 확실성을 추구할 때 의미의 추구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⁸⁾ 이 시대는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런 만큼 애초에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률과 시행계획이 만들어지게 된 근본 이유를 되새겨, 이를 자본 논리나 성과주의식의 확실성 논리로 회수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이다.

4. 성찰적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기대하며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서 인문정신을 시민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을 형식면에서 구분해보면 인문학을 토대로 하는 다양한 강좌들, 참여형 활동 프로그램, 여행(관광) 프로그램이 보인다. 내용면에서는 위로와 치유, 공동체 화합, 소통, 지역 기반, 코로나19 기록 등을 키워드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참여 대상 중심으로는 청년층, 노년층, 장애인, 교정시설, 군인, 이주민, 코로나19 피해자 등으로 분류한 프로그램 구성을 상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식

8) 구본원, 『메타인지의 힘』, 어크로스, 2023, p. 129.

으로 사회 각 계층에 전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기획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민 인문학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기존의 긍정적 성과를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앞서 제기한 여러 비판지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전제는 포스트 휴먼 시대라는 새롭게 부각된 사회적 과제에 대한 감각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발생했다. 언제 다시 도래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과 팬데믹 종료 이후 앤데믹 시대의 과제를 포함해 더욱 폭넓게 살펴야 할 인간 삶의 조건은 뉴미디어와 인공지능, 각종 과학기술로 변모할 포스트 휴먼 시대라는 특징이다.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이 대응해야 하는 주요한 사회적 변화는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그 특성의 발화가 앞당겨진 21세기식 포스트 휴먼 사회의 면모가 인류사적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인문정신적 대응이 절실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참조할 수 있는 인문학적 아이디어는 ‘성찰적 사고’의 심화 확산이다.⁹⁾ 기본적으로 인문학이 사회 내 공동체 감각과 연대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인문학의 근본정신이 성찰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인간사를 이루고 있는 많은 요소들을 표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갖는 심층적 가치와 이면의 의미를 탐

9) 장덕현, 「공공도서관 기반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현상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8권 제1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7, pp. 99-116; 노영희·곽우정·정대근, 「인문학 프로그램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21』 제10권 제1호, 2019, pp. 1317-1332; 유혜선, 「공공도서관에서 인문학 교육을 통한 자기 성찰이 삶의 만족,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융합학회, 『문화와 융합』 제43권 제12호, 2021, pp. 791-808 등 참조.

색하는 정신문화 영역이다. 인문적 시각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과 타자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되고, 상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거나 주변 상황에 즉각적인 반응으로만 일관하는 얕은 관점을 벗어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수한 현상에 매몰된 의식을 거시적 안목으로 전환할 수 있고, 도그마적 의식을 구체적 현실 파악으로 객관화할 수 있다.

이 성찰적 사고는 최근 뉴미디어 인공지능 시대 감각에 맞춘 용어인 ‘메타인지’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다. 메타인지는 특정 시대에만 적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최근 인터넷 미디어가 쏟아내는 무수한 정보들 틈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휘발되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구성해갈 수 있도록 지지해줄 수 있는 의식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된다. 구본원은 메타인지를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깨닫는 능력”¹⁰⁾ 또는 “자신을 (중략)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¹¹⁾이라 말한다. 세상을 받아들이는 입구로서의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는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힘의 확보로 이어진다. 특히 뉴미디어의 특성상 미디어 내 알고리즘은 각 개인들이 각자가 선호하는 내용에 맞춤식으로 정보를 출력한다.¹²⁾ 때

10) 위의 책, p.8.

11) 위의 책, p.75.

12) 뉴미디어의 정보들은 정보를 구하는 사람들 본인이 어떤 것을 검색하고 어떤 지향점을 떠는 정보들에 선호도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검색되는 정보가 달라진다. 즉 뉴미디어가 출력하는 정보는 객관적이기보다는 그것을 수행하는 개인의 의식을 반영·투영한 알고리즘의 결과물로서 재귀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승택, 「뉴미디어 시대의 알고리즘과 민주적 의사형성」,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3권 제3호, 2020, pp. 543-588; 최승현·서종범, 「가상사회에서 대학 인문학교육의 가치」,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제43권 제2호, 2022, pp. 159-179; 구본원, 앞의 책; 배승주, 「유튜브의 개인화 알고리즘이 유도하는 적극 이용 경로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산업정보학회,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제28권 제2호, 2023, pp. 31-45.

문에 뉴미디어의 정보에 대해 메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기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제 현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보는 정보들이 세상의 전부인 양 왜곡된 시선을 가질 여지가 많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분열과 대립의 골을 깊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지능의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생명체가 갖는 물리적 한계이자 보호벽을 넘어서는 온갖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펴봐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개인적·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필요하다. 이는 다른 말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 앞에서 그 변화를 편견 없이 확인하고, 생명과 윤리를 중심으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해석과 판단의 역량을 확보하는 과정이 연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사회의 인문학 프로그램 역시 바로 이와 같은 메타인지를 함양하는 부분과 연계된 방식에서 새로운움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메타인지가 갖는 “의심을 품은 채 머무를 수 있는 능력”¹³⁾에 대해 인식하고, ‘확실성’이 아닌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이나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확실성 논리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표피적 이해 수준에서 피상적인 답을 찾는 것에 머무르는 경향이 크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맞이하는 현실이나 잘 모르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충분히 사고하고 제대로 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고실험의 시간을 갖는 것은 무의미한 과정으로 여기기 쉽다. 어떤 대상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장기적 안목에서 다각도의 해석과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는 과정, ‘의심을 품은 채’ 그 대상에 ‘머무를 수 있는 역량’

13) 구본원, 앞의 책, p. 129.

이 필요하다. 뉴미디어와 각종 과학기술에 의해 가상과 실체가 뒤섞이고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기반해 유의미한 사실들을 걸러내고 그것들의 연계를 통해 세상과 호흡하는 가치를 도출해내기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최첨단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문해력’을 길러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해서 시민 향유 인문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바로 이와 같이 새롭게 대두된 시대 흐름에서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측면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프로그램은 이를 가능하게 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⁴⁾ 더불어 토론·토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활성화해 나가야 할 요소다. 이는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적대시하며 급기야 혐오를 드러내기까지 하는 경우¹⁵⁾가 많은 요즘, 사람 간의 소통을 유도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유연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최종적으로 인문학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계층적 위계적 직업적 젠더적 입장에서 차이 나는 사람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일 것이다. 1인 가구·청소년·고령층·소외지역 주민·남자와 여자 등등의 이름으로 공동체 내 사람들을 구별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혹은 생명이라는 그 자

14) 이은경, 「디지털 데이터 사회의 포스트휴먼을 위한 교육」,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신학사상』 제183집, 2018, pp. 137-163; 박휴용, 「포스트휴먼 리터러시」, 한국리터러시학회, 『리터러시연구』 제11권 제1호, 2020, pp. 11-55; 이유미, 「AI시대의 리터러시 특성에 관한 연구: AI 리터러시와 관계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학회, 『어문연구』 제110집, 2021, pp. 281-302 등 참조.

15) 주디스 버틀러, 유민석 옮김, 『혐오 발언』, 알렙, 2022.

체로 각자 자아실현을 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 말이다. 정상과 비정상, 권력자와 피권력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내국인과 외국인 등등의 차별적 구분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문정신이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다. 이 목표의 수행이 특정 사람들의 희생에 기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가능해지는 인문 사회의 도래를 단지 꿈이 아니라 당면한 미래로 생각하고 이를 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문정신이 약화되는 것과 성과주의 및 효율성이 강화되는 과정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이는 흐름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근대 이후 자본주의에서 발로한 ‘경제적 성과’ 위주의 세계관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볼 수 없는 발전된 사회를 가져왔다. 게다가 최근에 약진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미디어 인터페이스는 더욱 직접적이고 정교해진 성과 수치 산출의 기술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과 이외의 것들, 엄연히 존재하지만 효율성 논리에서 썸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은 배제되고 있기도 하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성찰적으로 조망해 생명과 윤리, 공동체와 연대의 가치를 구성하고 현실에 실현하고자 하는 인문정신이 아니고서는 자본 논리·성과주의에 잠식된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 구조를 자유롭게 할 명분은 없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의 진흥은 장기적 안목에서 인간 삶의 질을 고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 공동체는 인문학을 일상화하는 과정에 국가적 역량을 주입할 필요가 있고, 이 결과를 사회 구성원 전반에 전파할 의무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제1차 및 제2차 <인문정

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기본계획은 당대의 흐름 속에서 인문정신을 시민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기획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2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좀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간의, 그리고 1차 계획과 2차 계획 간의 연계를 원활히 하는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지향해야 방안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활발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 인문정신의 세계화 부분에서 기본계획이 재고해 보아야 할 시각에 대해서 논의했다.

본 논문의 이와 같은 제안이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인문적 메타인지의 힘을 고양하고, 전세계적으로 약화하고 있는 인문정신을 근본에서부터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 조성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2. 논문 및 단행본

구본원, 『메타인지의 힘』, 어크로스, 2023.

김재희,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철학연구회, 『철

- 학연구』 제106집, 2014, pp. 215-242.
- 노영희·곽우정·정대근, 「인문학 프로그램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21』 제10권 제1호, 2019, pp. 1317-1332.
- 박지희·김현·이영란, 「대학 성인학습자의 개인배경, 학습특성 및 참여동기, 학습경험이 평생학습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인계속교육학회, 『성인계속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23, pp. 55-75.
- 박휴용, 「포스트휴먼 리터러시」, 한국리터러시학회, 『리터러시연구』 제11권 제1호, 2020, pp. 11-55.
- _____, 「포스트휴먼 인문학의 이론적 배경 및 성격과 연구의 방향」, 언어과학회, 『언어과학연구』 제104집, 2023, pp. 347-378.
- 배승주, 「유튜브의 개인화 알고리즘이 유도하는 적극 이용 경로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산업정보학회,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제28권 제2호, 2023, pp. 31-45.
- 백재은, 「한류 대중문화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제38권 제3호, 2021, pp. 215-238.
- 손정훈·김민규, 「인문학 현상과 인문학 진흥정책(2007-2014)」,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3집, 2016, pp. 41-59.
- 송길영, 『시대예보:핵개인의 시대』, 교보문고, 2023.
- 송시형,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사회문화적 의미」, 한국인문사회질학회, 『사회질적연구』 제6권 제4호, 2022, pp. 133-150.
- 앨빈 토플러 지음, 이규행 옮김, 『미래쇼크』, 한국경제신문 한경BP, 1989.
- 유혜선, 「공공도서관에서 인문학 교육을 통한 자기 성찰이 삶의 만족,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융합학회, 『문화와 융합』 제43권 제12호, 2021, pp. 791-808.
- 윤민주·전하람·이경양, 「학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평생학습참여의 조절효과」,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문화연구』 제29권 제2호, 2023, pp. 587-608.
- 이경호·조대연·장은하,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비교 분석 연구」,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3, pp. 77-106.
- 이승택, 「뉴미디어 시대의 알고리즘과 민주적 의사형성」,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3권 제3호, 2020, pp. 543-588.
- 이유미, 「시시대의 리터러시 특성에 관한 연구: AI 리터러시와 관계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학회, 『어문연구』 제110집, 2021, pp. 281-302.

- 이은경, 「디지털 데이터 사회의 포스트휴먼을 위한 교육」, 한신대학교 신학사 상연구소, 『신학사상』 제183집, 2018, pp. 137-163.
- 임수진·동그란, 「케이팝의 글로벌 수용 현상과 발전 방향 모색」, 한국국회학회, 『한국과 세계』 제4권 제4호, 2022, pp. 153-177.
- 장덕현, 「공공도서관 기반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현상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8권 제1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7, pp. 99-116.
- 정복임, 「대학과 지역사회 평생교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국가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21』 제12권 제4호, 2021, pp. 1945-1959.
- 조순옥, 「유네스코 평생교육 논의에서 나타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어제와 오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 제2권 1호, 2014, pp. 55-80.
- 주디스 버틀러 지음, 유민석 옮김, 『혐오 발언』, 알렙, 2022.
- 최돈민, 「한국 평생교육정책 평가」,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 제18집, 2012, pp. 119-142.
- 최승현·서종범, 「가상사회에서 대학 인문학교육의 가치」,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제43권 제2호, 2022, pp. 159-179.

(투고일: 2023. 11. 9 심사완료일: 2024. 3. 18 게재확정일: 2024. 3. 20)

이회원

소 속: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전자우편: bigcrow3636@gmail.com

서민정

소 속: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전자우편: smj@pusan.ac.kr

[Abstract]

〈The 2nd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Humanities
Spiritual Culture〉 and the Direction of Promoting the
Humanities Spirit of Citizens

Lee, Hee-Won-Seo, Min-Jeong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2nd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Spiritual Culture〉. In order to promote humanities and spiritual culture, this Plan needs to extend the part that continues the context of the first basic plan. It is unclear whether the attempt to approach the issue of loneliness through forums, base centers, psychological experts, etc. Additionally, it should be reconsidered that most of the emphasis in globalization plans focuses on Korea's traditional culture. The source of today's Korean Wave is the Korean expression of the contemporary consciousness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sympathize with.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promotion of humanistic spiritual culture is expected to submit a policy created with a balanced sense that is based on a posthuman consciousness of the times and at the same time secures a humanistic and reflective perspective.

Key words :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Humanities Spiritual Culture〉, Posthuman Imagination, Humanities, Korean Wave